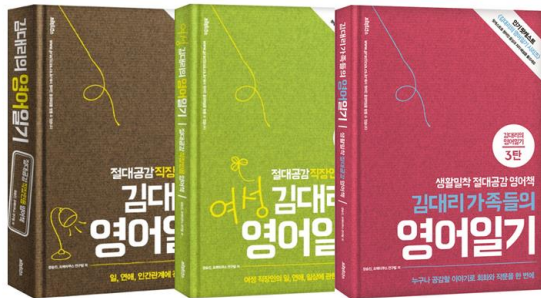


함께 쓰는 영어 일기 47

<광고>



김대리의 영어일기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내용으로 학습 효과 Up

팟캐스트로 들으면서 학습 효과 Up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나에게는 20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한가지 고민이 있다. 바로 여성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보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크기는 일과 삶이 적절히 조화될 때 최대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이런 생각이 더 들겠지? 최근에 '미스 슬로언'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불패 기록을 자랑하는 미국의 여성 로비스트를 그린 영화였다. 그녀의 경우, 일에서는 95의 만족감을 얻고, 나머지 삶에서는 5정도의 만족감 밖에 얻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일과 삶에서 오는 만족도의 비율이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쉽게 지치고, 주변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나름대로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리더들은 하나같이 현명하게 일과 삶을 잘 조화시킨 사람들이었는데, 내 눈에는 그런 삶이 일에만 몰두하는 삶보다 훨씬 멋져 보였다. 업계나 회사 내의 직무에 따라 이 두가지 요소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는 것 같다.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이다.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아 내 첫 아이와 만나게 되는데, 남편, 아이와 함께 이루어나갈 나의 또 다른 삶이 기대가 된다! 스스로에게 엄청 큰 파이팅을 날리며 2018년을 멋진 한 해로 만들어 보자!

Now I'm in my mid-thirties, but there's one matter I've constantly thought about since my mid-twenties. That is how to balance work and life as a woman. Unlike when I was a single woman, after getting married, especially being pregnant now, I think the total amount of happiness I can enjoy in my life would be maximized when work and life are optimally balanced. I guess this thought will become stronger after I have a baby. Recently, I watched the movie "Miss Sloane", which is about a female lobbyist who is almost unstoppable in her field. To me, she looked like a woman who gets 95 percent of her satisfaction from her work and the remaining 5 percent from her personal life. If your happiness ratio is as extreme as hers, you will be mentally and physically tired, and your relationship with people around you will have also problems too. If so, you're going to live a life where the means become more important than goals. My female role models are those who balance work and life wisely. For me, their balanced life looks greater than the kind of life where one is only dedicated to work. How to successfully balance work and life depends on the type of industry you're in or the kind of work you do within an organization. If I work as a free-lancer, my lifestyle would be ideal. But free-lancer jobs are very limited. In a few months I'm going to have my baby, and I can't wait to live a new life with a family of three.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I'd like to have a great 2018.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나에게는 20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한가지 고민이 있다.
 Now I'm in my mid-thirties, but there's one matter I've constantly thought about since my mid-twenties.

바로 여성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That is how to balance work and life as a woman.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보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크기는 일과 삶이 적절히 조화될 때 최대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Unlike when I was a single woman, after getting married, especially being pregnant now, I think the total amount of happiness I can enjoy in my life would be maximized when work and life are optimally balanced.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이런 생각이 더 들겠지?

I guess this thought will become stronger after I have a baby.

최근에 '미스 슬로언'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불패 기록을 자랑하는 미국의 여성 로비스트를 그린 영화였다. Recently, I watched the movie "Miss Sloane", which is about a female lobbyist who is almost unstoppable in her field.

그녀의 경우, 일에서는 95의 만족감을 얻고, 나머지 삶에서는 5정도의 만족감 밖에 얻지 못하는 것 같았다.

To me, she looked like a woman who gets 95 percent of her satisfaction from her work and the remaining 5 percent from her personal life.

하지만 일과 삶에서 오는 만족도의 비율이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쉽게 지치고, 주변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If your happiness ratio is as extreme as hers, you will be mentally and physically tired, and your relationship with people around you will have also problems too. If so, you're going to live a life where the means become more important than goals.

내가 나름대로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리더들은 하나같이 현명하게 일과 삶을 잘 조화시킨 사람들이었는데, 내 눈에는 그런 삶이 일에만 몰두하는 삶보다 훨씬 멋져 보였다.

My female role models are those who balance work and life wisely. For me, their balanced life looks greater than the kind of life where one is only dedicated to work.

업계나 회사 내의 직무에 따라 이 두가지 요소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는 것 같다.

How to successfully balance work and life depends on the type of industry you're in or the kind of work you do within an organization.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이다.

If I work as a free-lancer, my lifestyle would be ideal. But free-lancer jobs are very limited.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아 내 첫 아이와 만나게 되는데, 남편, 아이와 함께 이루어나갈 나의 또 다른 삶이 기대가 된다!

In a few months I'm going to have my baby, and I can't wait to live a new life with a family of three.

스스로에게 엄청 큰 파이팅을 날리며 2018년을 멋진 한 해로 만들어 보자!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I'd like to have a great 2018.